

## 신년사

## AZUWI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랑스런 MBC사우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새로운 해를 벅찬 감격으로 맞으면서도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회한(悔恨)과 반성(反省)을 함께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문화방송 사우회원 여러분!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AZUWI』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리카대륙 남단에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30년 가까이 외딴 섬에서 옥살이를 했던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가 수감생활 중 자신의 딸의 출산 소식을 듣고 손주에게 붙여준 이름이 바로 『AZUWI』입니다. 『AZUWI』는 그 나라 말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격렬한 흑백 인종갈등의 와중에서도 만델라는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AZUWI』를 새기는 마음으로 2022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MBC사우회원 여러분! 지난해 문화방송의 경영성과는 어려움 속에서도 영업이익의 흑자(黑字)를 기록했습니다.

드라마를 비롯해 모든 MBC의 Contents의 약진을 위한 청신호라고 하겠습니다. 2022년 올해에는 Digital시대에 세계로 웅비(雄飛)하는 희망찬 문화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난 3년간의 문화방송사우회장의 대임(大任)을 큰 과오(過誤) 없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비롯해 사우회 임직원들을 믿고 여러모로 성원(聲援)해주신 사우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우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MBC 60년 역사의 산증인들이십니다. 금지와 자부심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고향 MBC'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희망의 밝은 빛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우회 회장 차인태 올림

## 굳건한 공영방송의 기틀을 세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MBC사우회 선배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선배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시길 바랍니다.

한 달 전 창사 60주년 기념사에서 저는 MBC의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압도적인 K-콘텐츠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MBC

▶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MBC

▶ 민주주의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영방송 MBC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전은 지난 2년 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이므로 오늘은 세 번째 '공영방송 MBC'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MBC는 투명한 지배구조 아래 수 십년 간 수 천억원을 공적자금으로 내면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온 방송입니다.

민영방송이나 종편보다 훨씬 불리한 제도를 감내해 온 것은 'MBC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명제를 모두 숙명처럼 가슴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BC의 지배구조와 공적 기여도만으로 '공영성'이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MBC를 진정으로 공영방송이게 하는 것은 콘텐츠의 '공영성'입니다.

가장 공영적인 콘텐츠는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는 콘텐츠로서 그 핵심은 창의성과 상상력입니다. 더 재미있고 더 감동적인 콘텐츠가 더 공영적인 콘텐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MBC사우회 선배님 여러분.

2022년은 MBC가 굳건한 공영방송의 기틀을 세우고, 콘텐츠 르네상스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활기찬 한 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선배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문화방송 사장 박성제 올림





## 사우회 임원진 간담회 가져



작년 12월 1일 오전 10시 반 사우회 회의실에서 임원진 간담회가 열렸다. 21명의 임원 중 18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상임부회장이 사우회 현황과 발전기금 접수 실적, MBC 창사 60주년 쌀 전달 경과, MBC의 올해 경영성과 등을 보고

한 후 차기 회장 선출에 관해 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있었다.

차 회장은 “사우회 정관에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규정된 만큼 각 부문 부회장과 이사들은 향후 부문 회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2월 이사회에서 좋은 회장 후보를 추천해주실 것”을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임원들은 오찬을 함께 하는 것으로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 차 회장, 박성제 사장과 신년 인사



1월 5일 차인태 회장은 상암동 한식당에서 박성제 MBC 사장과 신년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정호식 부사장과 사우회 김상옥 상근부회장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차 회장은 ‘작년에 MBC가 이룬 경영 성과를 치하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MBC의 위상을 다시 높여준 임직원들의 그간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MBC가 사우회 선배들에게 여러 모로 신경을 써준 점에 대해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성제 사장은 ‘사우회 선배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 덕분에 좋은 성과를 보고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며, 올해는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모든 시청자들에게서 사랑받는 공영방송 MBC’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 발전 기금을 내주신 분들(3월 10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 황외진(MBC C&I사장) 100만원
- 고흥칠(편제) 100만원
- 홍석진(기술) 50만원
- 석남수(기술) 30만원
- 전용립(관리) 30만원
- 조성식(업무) 20만원
- 정호준(기술) 10만원
- 김영금(관리) 10만원



황외진



고흥칠



홍석진



석남수



전용립



조성식



정호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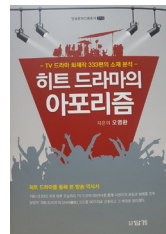
김영금

### 회/원/동/정

▶오명환(편제)



작년 11월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원을 받아 『히트 드라마의 아포리즘』을 발간했다. 1961년 KBS 개국 이후 현재까지의 TV 드라마 가운데 이른바 ‘히트 드라마’로 거론되는 333편을 추려서 간략한 소개와 함께 히트하게 된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다양하게 분석했다.



###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노형식(편제)

1985년 영상미술국 입사. 영상제작부 등 근무. 2019년 퇴사.

## 친구 김강정金康正을 추모하며



이상열(보도)

오호! 애재哀哉라. 사랑하는 내 친구 김강정.

새해 첫날 뜻밖에도 자네에 대한 추모사를 써야 한다니 이게 무슨 기막힌 일인가.

돌이켜 보면 자네와 나는 참 많이도 닮은 인생을 살아왔었네. 같은 고등학교에서 공부했고, 같은 대학 같은 학과, ROTC도 같이 거쳤고, 마침내 직장마저 같은 MBC, 그것도 같은 기자, 그리고 자네는 뉴욕 특파원 나는 홍콩특파원. 그뿐인가. MBC를 퇴직하고 나서는 둘 다 대학에서 후진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늘길도 같이 갈 것 같다고 농담삼아 말하곤 했었는데 자네가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 버리다니.

몹쓸 놈의 위암과 후두암 게다가 췌장암까지. 무려 2년 반이 넘게 병

마와 힘든 싸움을 하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던 자네 김강정. 췌장암 수술을 마치고 나서 한 달 후에는 일본 골프투어까지 강행할 만큼 굳건한 생의 의지를 보이던 자네가 아니었나. 그랬던 자네가 2021년이 끝나가는 날에 홀연히 세상을 떠난다니 이게 무슨 청천의 벽력이란 말인가.

내 친구 김강정. 자네는 한마디로 ‘의지의 사나이’였네.

췌장암 판정을 받은 직후 가진 식사 자리에서 생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피력하던 자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네. “까짓거 이판사판인데 목숨 걸고 한번 싸워봐야지 뭐”라며 너무도 담담하게 웃어 보이던 자네의 얼굴을 보며 나는 자네의 필승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었네. 병세가 어느 정도 차도를 보이던 어느 날인가 ‘죽기 전에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 휴양지에서 안식을 갖겠다’며 지난 해 11월 15일에 출발하는 프랑스행 티켓을 예약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강한 정신력을 가졌던 자네는 金康正이 아니고 金强精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사나이였었지.

술자리를 같이 한 후배, 동료들이 자네 집에 붙여준 애칭 ‘해청싸롱’과 ‘대방싸롱’에서 자네는 많은 동료, 후배들과 소통의 가교를 참 많이도 가졌었지. 일에는 항상 엄격했고 사석에서는 누구보다 인간미가 넘치던 자네는 특히 후배들에게는 늘 따뜻한 선배요 배려해 주는 선배로 기억되고 있다는 걸 자네는 아는지 모르겠네.

뛰어난 업무능력, 훌륭한 인품, 따뜻한 인정, 그리고 해맑은 미소가 인상적인 자네는 멀리 떠나보내기엔 너무나 아깝고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걸 오늘 새삼 느끼고 있네.

사랑하는 내 친구 김강정.

육신은 비록 곤지암 소망동산에 한 줌의 재로 뿌려져 이 세상과 이별했지만 자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남기고 간 따뜻한 마음은 자네가 목



숨처럼 사랑했던 아내 명희 씨와 아들 대일 군, 딸 이라 양은 물론이고 자네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네. 부디 병마病魔없는 천국에서 편히 쉬게나. 오호, 애재哀哉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계:21:4)



경조사항

팔순: 선남준(관리) 43.2.20      박종완(관리) 43.2.21  
이용재(관리) 43.2.25      박우정(보도) 43.3.10  
최영삼(편제) 43.3.17

고희: 이중형(관리) 53.2.2      봉필구(편제) 53.2.5  
강동균(편제) 53.2.21      이성수(보도) 53.3.3  
김만섭(기술) 53.3.15

회갑: 이선재(보도) 62.2.5      김광민(관리) 62.2.9  
이미영(ANN) 62.2.17      송석철(관리) 62.2.19  
송주한(보도) 62.3.6      강진택(관리) 62.3.22

결혼: 이문노(보도) 딸 11.27      김종국(관리) 아들 12.11  
조항민(보도) 아들 12.12      이병윤(편제) 딸 12.12  
원만식(편제) 딸 12.25      전종건(관리) 딸 12.28  
문시웅(업무) 아들 1.8      박정인(관리) 딸 1.8

부음: 정호준(기술)장모상 11.21      정순원(보도)장모상 11.22  
김진광(관리)모친상 12.2      강지현(관리)시부상 12.2  
김경로(기술)장모상 12.5      김옥균(편제)배우자상 12.16  
함윤수(편제)모친상 12.21      김종한(관리)장인상 12.31

연회비

2021년: 강유현 강철호곽성문 경진근 김만기 김봉성 김영금  
김재홍 박문식 방남순 방영희 신명현 조준희 양홍열  
이재원 이중구 이한수 지덕환 진경현 전용학 최근식  
최영호

2022년: 김승수 나종석 박기윤 연규철 윤남현 이연경 채애림  
최정일

2024년: 정대용

주소 / 전화번호 변경

편제: 박정근 전북 장수군 계북면 외목길 11-5  
이영삼 경기 김포시 고촌읍 상미로 38  
정수열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330번길 15-17  
정은숙 경기 군포시 번영로28번길 45-18

보도: 윤능호 서울 송파구 잠실로 88  
이상열 서울 광진구 능동로 90  
임동훈 경기 과천시 별양로 12  
조수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터4로 79  
최노석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534  
하동근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직단로 409-12

기술: 권호식 서울 구로구 개봉로20길 6  
노영남 경기 평택시 고평로 50  
조영연 경기 용인시 중부대로 747번길 22-4

관리: 김정수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로 22  
경진근 경기 파주시 별하람로 53  
안남례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60  
이종선 서울 은평구 불광로16길 13-13  
정연곤 서울 구로구 경인로65길 16-15  
정준모 경기 평택시 고평로 50  
채애림 서울 강동구 고덕로 84-7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송영수(편제)  
7월 1일 숙환으로 별세했었다는 통보를  
12월 17일 배우자로부터 받음. 향년 81세.  
1969년 미술부 입사. 1972년 퇴사.



이은춘(관리)  
11월 12일 숙환으로 별세. 향년 87세.  
1972년 총무국 입사. 비상계획부에서 근무.  
1988년 퇴사.



조병욱(관리)  
11월 22일 별세. 향년 68세.  
1980년 시설관리부 입사. 시설관리부장,  
MBC미디어텍 팀장 역임. 2009년 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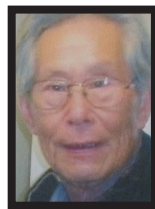
조부성(편제)  
11월 26일 별세. 향년 91세. 1961년 서울중앙방송국  
에서 문화방송 편성과로 입사.  
1961년 동아방송으로 이직.



반응섭(관리)  
12월 1일 별세. 향년 83세. 1968년 입사.  
자재부, 총무부 등 근무. 대전MBC 총무부장,  
여의도백화점 대표.



강의원(전주)  
12월 14일 노환으로 별세. 향년 84세.  
1971년 전주MBC 총무부 입사.  
기획심의부장 등 역임. 1995년 퇴사.



장기완(미주)  
12월 20일 별세. 향년 86세. 1969년 보도국 입사.  
카메라 취재부에서 근무.  
1983년 퇴사 후 미국 LA로 이주했었음.



김강정(보도)  
12월 30일 별세. 향년 78세. 1970년 보도국 입사.  
보도국장, 경영본부장, iMBC 사장,  
목포MBC 사장, 가천대 교수 등 역임.

회비와 발전기금을 보낼 계좌번호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 아이슬란드에서의 13박 14일

\*QR코드를 스마트폰 코드스캔으로 잡으면 관련 유튜브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전재철(보도)

## ■ 나의 버킷리스트 ■

재직 중 취재를 위해 많은 나라를 가봤었다. 그러나 업무 여행은 항상 ‘走馬看山’이었고 언젠가 ‘여행다운 여행, 나만을 위한 여행’을 해보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여행 버킷리스트가 하나씩 생겨났고 아이슬란드 여행은 내 버킷리스트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여행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져서 버킷리스트를 접어놓고 있었는데 뜻밖에 버킷리스트를 열어보게 만든 일이 생겼다.

지난 3월 19일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카비크(Reykjavik)에서 멀리 않은 곳에서 파그라달스파(Fagradalsfjall) 화산이 폭발해 용암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온 것이다. 현장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용암처럼 뜨거워졌고 드디어 친구 몇 명이 ‘아이슬란드로 가자’는 것에 의기투합했다. 아이슬란드는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전세계 어디든 백신 접종을 한 여행자들에게 입국을 허용하는 첫 국가였고 아이슬란드의 입국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출발 최소 14일 전 아이슬란드 당국에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해 백신 예방접종을 완전히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아이슬란드행 교통편 탑승 전, 출발 72시간 전 유전자 증폭(PCR)검사 후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 ■ 여행 1일차 ■

두 쌍의 부부를 포함해 모두 6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14일이 지난 9월 26일 대망의 여행을 떠나게 됐다. 당초 비행 스케줄은 핀에어를 타고 헬싱키로 가서 아이슬란드 에어로 갈아 타고 16시간이면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카비크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지만, 출발 며칠 전 레이카비크에서 헬싱키로 돌아오는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따라서 전 일정의 항공티켓을 재발급 받았는데 카타르 에어로 카타르의 도하로 가서 노르웨이

의 오슬로, 그 다음 아이슬란드의 레이카비크로 가는 25시간짜리 일정으로 바뀌었다.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풀프레임 디지털 카메라와 촬영용 드론을 우선적으로 챙겼다.

오슬로에 도착했는데 ‘오슬로발 레이카비크행 비행편이 취소됐다’며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가서 레이카비크행 비행기를 타란다. ‘미안하다’며 한 사람당 약 2만원의 식사 쿠폰을 준다. 우여곡절 끝에 집 떠난지 35시간 만에 3개국을 거쳐 목적지인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카비크에 도착했다. 아이슬란드는 인구 35만명 정도 되는 작은 나라로 일년 예산이 인천광역시보다 적다. 그러나 땅 넓이는 우리나라보다 약간 넓다. 아이슬란드는 ‘The Land of fire and ice’(불과 얼음의 땅)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이는 빙하와 화산에서 비롯된 말이다.

따뜻한 멕시코만류의 영향으로 겨울 평균 기온이 영상이라서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지만 여름 기온은 고위도(북위64~66도)라 섭씨 13도 정도로 시원하다.

이번 여행 기간 동안 평균 기온은 영상 3~7도 였으나 바람이 시속 40~65km 정도로 미친듯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3도에서 영하 10도 정도 됐다. 아이슬란드에는 ‘링로드’라 칭하는 1번 국도(Route 1)가 있다. 우리는 길이 약 1,700km인 링로드를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로 하고 9인승 차량을 렌트했다. 24인치 중형 여행가방 여섯 개를 싣고 교대로 운전하며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는 밥도 해 먹으며 다니기로 했다. 이곳의 물가가 비싸 한 끼 먹으려면 약 3만 원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 ■ 여행 2일차 ■

처음 들른 곳은 수도 레이카비크에서 50km 떨어진 싱벨리르(Thingvellir) 국립공원이다. 이 공원은 아이슬란드인들이 성지로 여기며 역사적으로 아이슬란드 국가의 근간이 되었던 곳인데 공원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지질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판과 북아메리카 대륙판이 갈라지면서 만들어낸 균열을 볼 수 있다.

### ▶ 게이시르(Geysir)

간헐천의 대명사가 된 게이시르는 지표 근처의 뜨거운 물이 지하

수증기압이 높아지면서 물이 솟구치는 것을 말한다. 수온 100도의 물을 30미터 높이로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분출한다.(사진1)



(사진1)

다음 들른 곳은 굴포스(Gullfoss) 즉 황금폭포다. 굴포스는 그 장대함으로 세계 10대폭포 중 하나로 꼽힌다. 아이슬란드에는 유달리 ‘foss’라는 지명이 많은데 ‘foss’는 폭포를 뜻한다.

## ■ 여행 3일차 ■

### ▶ 셀라란드스 폭포(Seljalandsfoss)

65m의 폭포인데 특이하게도 폭포 뒤로 가서 폭포 안쪽에서 밖을 볼 수 있다.



### ▶ 스코가 폭포(Skógafoss)

해가 나면 언제나 무지개를 볼 수 있고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물줄기의 폭포로 셀라란드스 폭포(Seljalandsfoss) 근처에 있다.(사진2)



(사진2)

### ▶ 디르홀레이(Dyrhólaey)

바다를 내려다보는 등대가 정상에 있는 해안 절벽이며, 푸른 초원 아래 검은 모래사장 위로 밀려들며 부서지는 거친 파도와 저 멀리 빙하가 있는 장관이 펼쳐진다.(사진3)



(사진3)

## ■ 여행 4일차 ■

아이슬란드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인 빙하지역을 갔다.

### ▶ 바트나요쿨(Vatnajökull) 국립공원

아이슬란드 국토 전체 넓이의 13퍼센트인 13,600제곱km에 달하는 넓이를 가진 남동부에 위치한 국립공원이다. 안전장비인 하네스와 아이젠, 피켈을 갖추고 빙하 트레킹을 해본다.(사진4)



(사진4)

아이슬란드의 자연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세상이 아닌 듯한 풍경은 많은 영화의 촬영지가 됐다. ‘007’,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인터스텔라’등 수많은 영화가 아이슬란드에서 촬영되었는데 영화에서는 외계행성이나 네팔, 러시아 또는 그린란드 등 다른 지역으로 나왔다. 그 중 ‘007뷰투어킬’, ‘툼레이더’, ‘배트맨’ 등 여러 영화의 촬영지로 유명한 요쿨살론(Jökulsárlón)빙하호수에 가본다. 빙하호에서 떠내려온 빙하 조각들이 모여서 환상적인 풍경을 만드는 다이아몬드 해변은 많은 사진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장소다.(사진5)



(사진5)

## ■ 여행 5일차 ■

이동 중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이다. 중간 중간 내려서 사진을 찍으며 쉬며 이동한다. 역시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무대 중 하나인 세이디스피요르(Seyðisfjörður)에서 민박집에 여장을 풀고 밀린 빨래를 한다.(사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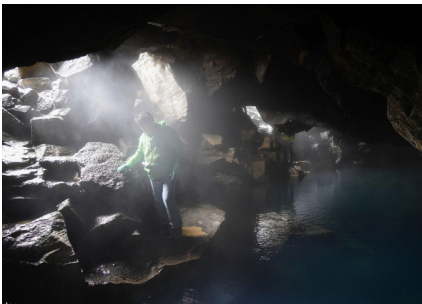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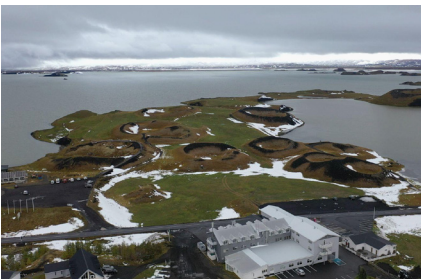
(사진6)

### ■ 여행 6일차 ■

미바튼(Myvatn)호수 지역 탐방. 조금 고지대의 지열 지대에 있는 악마의 분화구(Viti Crater)를 들렀으나 안개로 보이지 않는다. TV 시리즈 '왕자의 게임'은 대부분 아이슬란드에서 촬영했는데 남녀 주인공이 사랑을 나누는 그료타기아(Grjótagjá)온천 동굴이 있다. 지금은 수온이 너무 뜨거워져서 입욕 금지다.(사진7) 미바튼 호수 아래쪽 제주도의 오름을 닮은 가분화구 옆에 숙소를 정하다.(사진8)



(사진7)



(사진8)

### ■ 여행 7일차 ■

기대가 많았던 데티포스(Dettifoss)와 셸포스(Selfoss)를 보러 가는데 최악의 날씨를 만났다. 폭풍 수준의 바람과 진눈깨비에 온몸이 다 젖었다. 아스뷔르기 협곡(Asbyrgi Canyon)에서 가장 깊은 가울을 만났다.(사진9)



(사진9)

### ▶ 고다폭포(Godafoss)

'신들의 폭포'라고 불린다. 1,000년 전 아이슬란드가 기독교를 받아

들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스칸디나비아 신상들을 이 폭포에 던진 것에서 유래됐다.(사진10) 아이슬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아쿠레이리(Akureyri)의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풀다. 두 번째로 큰 도시라지만 인구는 2만 명이 채 안된다.



(사진10)

### ■ 여행 8일차 ■

아쿠레이리는 신호등의 빨간색이 하트 모양이다. 십여초 신호 대기하는 동안 마음이 따뜻해진다. 아쿠레이리는 60km길이의 Eyjafjörður만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30km 북쪽의 달비크(Dalvík)항구에서 고래관광선을 타고 고래 구경을 나갔다. 여러 종류의 고래가 서식하지만 혹등고래 여러 마리와 돌고래 십여 마리를 만났다(사진11) 1985년 포경선을 타고 취재할 때는 도망가는 고래를 쫓아다녔는데 이젠 고래를 찾아 구경 다닌다.



(사진11)

### ■ 여행 9일차 ■

오늘의 이동 거리는 435km다. 아이슬란드에서 멋지게 그림을 만들어 보려고 드론을 가져 왔지만 그동안 비바람에 제대로 날리지 못했다. 오늘 435km일정 중 비가 그치고 잠깐 반짝하길래 드론을 띄웠다가 나무와 충돌했다.

드론이 부서진 것이 아깝긴 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남은 일정 동안 드론 촬영을 못함이 못내 아쉽다. 다행인 것은 드론을 찾아서 나무 위에서 회수했고 그동안 찍은 메모리도 안전하다는거. 앞친데 덮친 격으로 비포장도로 운전 중 포트홀을 밟아 타이어가 찢어져 버렸다. 눈보라 속에 타이어 바뀌 끼우느라 고생은 했지만 큰 사고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아이슬란드를 검색하면 대표사진으로 꼭 나오는 곳이 있다. 스나이펠스네스(Snaefellsnes)반도에 있는 키르큐펠(Kirkjufell)산과 폭포다. 지금까지 지

나온 폭포에 비하면 아주 작은 폭포지만 뒤의 키르큐펠산과 멋지게 어울린다. 비슷한 앵글로 한 장 담아 본다.(사진12)



(사진12)

### ■ 여행 10일차 ■

어제에 이어 스나이펠스네스 국립공원 지역 관광이다. 링로드에서 다소 떨어져 있지만 아이슬란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해안선과 검은 모래, 흰 모래 해변, 자연동굴들이 있는 곳이다.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가까워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소개됐던 빨간 지붕의 헬나르 식당에 들렀다. 해물 스프가 유명하다 해서 갔는데 아쉽게도 영업을 안 한다.

이곳에서 출발하는 약 2.5km의 해안 트래킹 코스가 숨 막히게 아름답다. 비교적 날씨가 맑아 밤에 오로라를 기대했으나 역시 보여주지 않는다. 오로라 보러 다시 와야 하나...

### ■ 여행 11일차 ■

화산 몇 개, 온천 몇 개를 둘러 흐라운포사르 바르나폭포(Hraunfossar & Barnafoss)에 가본다. 용암층에서 흘러 나오는 물이 900m 길이에 걸쳐 수백개의 폭포를 만든다.(사진13) 바르나폭포는 딸을 잃은 엄마의 애잔한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점심 지나 수도 레이캬비크에 도착했다. 우리나라 입국을 위한 PCR 검사를 받았다. 드디어 이 여행의 모티브가 되었던 파그라달스파(Fagradalsfjall) 화산의 용암 분출을 보러 1시간 30분의 산길을 올라갔다. 그러나 용암은 볼 수 없었고 시커멓게 굳은 용암과 연기, 유황 냄새만 있을 뿐이다.(사진14) 많이 아쉬웠지만 덕분에 좋은 구경 많이 했다고 자위해 본다.



(사진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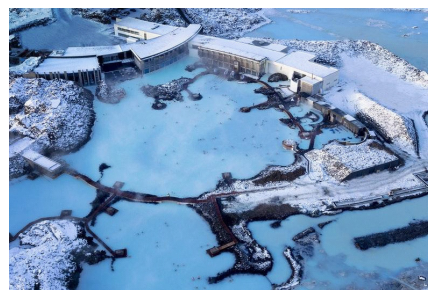


(사진14)

### ■ 여행 12일차 ■

레이캬비크 시내 관광을 하고 유명한 온천 스파인 블루라군(Blue Lagoon)에 들렀다.

피부병, 특히 건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곳은 지열발전소를 만들면서 나오는 뜨거운 지하 온천수가 고여서 만들어진 곳이다. 넓이가 8,700제곱미터나 되는 야외 온천인데 인기가 많아 예약이 필수다.(사진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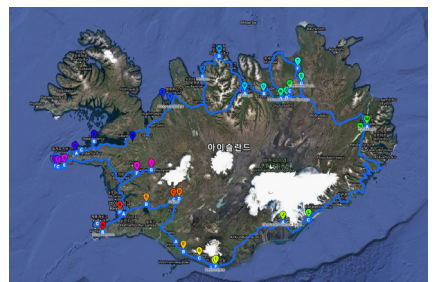
(사진15)

### ■ 여행 13일차 ■

링로드를 따라 아이슬란드를 한 바퀴 돌아서 링을 완성했다. GPS로 추적한 거리를 보니 약 2,500km를 달리고 걷고 배를 탔다.(사진16) 새벽에 출발해 스톡홀름, 카타르 도하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집에 돌아오니 호텔 떠난 지 31시간 만이다.

### ■ 도착 1주일 후의 소회 ■

이렇게 해서 버킷리스트에서 한 줄을 지운다. 도착해서도 1일 차에 PCR검사, 7일 차에 PCR검사, 물론 모두 음성이었다. 아이슬란드에선 거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백신 접종율이 높아지고 서로 조심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도 가능하다고 본다. 시차 적응도 있지만 비현실적인 세상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멍하게 일주일을 보냈다. 한마디로 아이슬란드 여행은 꼭 가보시라고 추천한다.



(사진16)



## 산전은 의구<sub>依舊</sub>한데 사옥<sub>社屋</sub>은 간 데 없고



정종국(관리)

오랜만에 여의도 나들이를 했다. 모임이 끝나고 나오면서 문득 옛 MBC 사옥이 있던 자리를 가보고 싶었다. 우람한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통일로 부지를 비롯해 주변 일대는 엄청나게 변했고, 눈감으면 떠오르는 낮익은 풍경은 흔적조차 없었다. 예상은 했으면서도 막상 보고나니 마음이 착잡했다.

1978년 11월, 건축, 전기, 설비 분야의 경력사원 3인과 기존 사원 3인이 분야별로 2인 씩 짝이 되어 정동 사옥 별관 증, 개축 공사와 함께 여의도 스튜디오 설계 계약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분야별 설계 책임회사가 확정된 후 1979년 2월, 1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으로 가서 NHK, 후지TV 기타 방송사와 현대식 건물을 돌아보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국내 도급 순위 10대

건설사를 지명했는데 절반 가량이 참여했으며 동아건설이 최저가를 제시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공사 기간은 30개월로 정하고 1979년 9월 11일 기공식을 했지만, 10, 26과 12, 12사태, 이어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나라가 요동치고 회사에는 경영진이 바뀌는가 하면 건설사 무소장이 바뀌는 일도 있어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1982년 3월 17일 마침내 준공식을 갖게 됐다.

지하 2층 지상 10층, 연건평 13,428평 규모로 A스튜디오 300평, B스튜디오 200평, C스튜디오 280평, D공개홀 330평에 560석의 객석과 그에 따른 부조정실 및 부속실, 사무실, 지하세트장, 미술품 창고 및 지하 주차장을 건설했다.

준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제작공간이 부족해졌고, 게다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등을 대비하기 위해 여의도 스튜디오를 증축하기로 결정해 1985년 1월 '여의도 증축사무소 건설기구'를 조직하고 처음 설계자들에게 증축

설계를 의뢰하여 1985년 5월 1일 증축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공사기간은 1년으로, 기간이 매우 짧다보니 거의 매일 야간작업을 강행했고 소음으로 인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그칠 새가 없었다. 당시 서무를 맡았던故손학수 차장이 민원 해결담당이 되어 매일 주민들을 만나 사정하고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다.

근무자들은 하루 세끼 식사를 매일 현장에서 했고 한 달에 일요일 두 번만 쉬면서 공사를 강행했다. 증축면적은 약 5,100평으로 두 개의 뉴스 전용 스튜디오와 두 개의 일반 스튜디오, 편집실 등이며 4층에 있던 구내식당과 통신실을 증축 부위로 이전했다. 1986년 5월 준공과 함께 정동에 있던 본사가 여의도로 통합함으로써 총 면적 18,400평 규모의 '여의도MBC시대'가 시작됐다.

사옥을 여의도로 통합하고 86아



시안게임과 88올림픽 경기를 치르면서 방송시간도 늘어나고 회사 규모도 커졌는데, 그러다 보니 또 다시 공간이 부족해져서 인근 쌍마빌딩과 동서증권 빌딩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일이 나중에 벌어졌다. 돌이켜 보니 MBC는 80년대와 90년대에 사세<sub>社勢</sub>가 제일 크게 확장되지 않았었나 생각된다.

'여의도MBC시대' 30년. 비록 건물은 없어졌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흘렸던 땀과 우리가 쏟았던 열정들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어서 여의도는 언제나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 전주 김씨 시조묘 이야기



장영배(보도)

남북 대치의 긴장 국면이 계속되다가 한때라도 대결 상태가 화해의 분위기로 뉴스를 타게 되면 전주 근교 모악산 기슭에 있는 전주 김씨 시조묘<sub>始祖墓</sub>가 화제에 오르곤 한다.

김일성은 시조묘에 있는 김태서<sub>金台瑞</sub> 시조의 32세손이고 김정일은 33세손이기 때문이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때도 그랬다. 6.15공동선언문에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명시됐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정상회담 한 달여 뒤 김정일 위원장의 공식초청으로 전국 언론사 대표단의 평양방문 일정이 확정됐고, 전주MBC 사장 자격으로 40여 명의 방문단에 합류했다. 8월 5일부터 12일까지 7박8일 동안 세밀하게 짜여진 일정에 따라 평양 시내 명승지와 유적지, 문화예술 공연 등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평양을 벗어나서는 백두산의 최고봉인 장군봉(2,750m)에도 올랐고 천지<sub>天池</sub>에 손을 담그고 팔뚝만한 산천어로 끓인 어죽도 맛봤다.

북측의 환대는 극진했다. 그러나 고운 옷차림으로 꽃을 흔들며대는 환영 인파 뒤편에는 90년대 '고난의 행군'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힘들어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당시 명령하면 우리는 한다" 등의 표어들은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는 안간힘으로 느껴졌다. 우리 일행은 어느 곳에서도 고개를 숙이거나 참배

하지 않았고, 박수를 치거나 비판하지도 않았다. 보여주는 그 대로를 담담하게 받아 들였다.

방문 마지막 날, 김 위원장 초청 만찬이 있었다. 원산 현지지도 중에 서둘러 왔다고 했다. 목란관 대연회장. 식탁의 차림표는 대동강 송어탕, 하늘소 철판구이, 병아리 인삼밥, 건강 남새볶음 등 생소한 이름의 음식들로 풍성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와인잔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부드러워지고 김 위원장의 환영사와 건배, 담소와 덕담이 이어졌다. 나도 단상으로 올라가 김 위원장과 와인잔을 부딪치며 "전주MBC 사장입니다"라고 자기 소개를 한 뒤 "전주에 전주 김씨 시조묘가 있는데 아십니까? 한번 오시죠"라고 말을 건넸다.

김 위원장은 "아, 알고 있지요. 수령님이 계셨으면 벌써 가셨을 텐데.. 가야지요"라고 화답했다. 만찬이 끝나고 작별인사를 할 때도 "아, 전주"하며 환하게 웃었다.



김씨 시조묘

비록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눈썹은 대화였지만 당시로서는 흐뭇했다. 전주 김씨 시조묘와 전주를 소개하는 앨범을 만들어 동행한 박지원 문광부장관을 통해 미리 북측에 전달했으나 받았다는 대답은 듣지 못했다. 평양 방문 얼마 뒤 모악산 시조묘를 찾았더니 묘역 일대가 정갈하게 단장돼 있었다.

서울 방문을 예약했던 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 17일 세상을 떠났다. 북한 통치를 이어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쪽에 있는 시조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새삼 궁금하다.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그가 시조묘를 찾아보는 일도 그다지 불가능한 일이 아닐텐데 말이다.



## 정서적 대물림



정진민(관리)

“대물림”이란 말은 예나 지금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은 아닌 듯하다. 그래서인지 “대물림”이란 말을 쓰면 사람들은 “아! 유전되는 거 말이지요?”라고 묻는다. 하지만 “유전”이란 용어는 건조한 느낌이 들고 “대물림”이란 말이 뭔가 더 ‘의미심장’한 뉘앙스를 느끼게 한다. 이는 상담심리사로서 10여 년 넘게 일하는 동안 내담자來談者의 “자기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도록 도우면서 그 가족의 “대물림 현상”을 발견하고 감탄을 넘어 경외감까지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대물림”은 변화무쌍한 자연 현상 속에서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모든 생명체의 “정체성·항상성”을 유지해 나가는 경탄스러운 자연 현상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대표적으로 떠오른다.

두 작물의 생명력 안에는 ‘백번 천번 심어 봐도 콩은 콩이요 팥은 팥’으로 확실히 차별화되면서도 각각 “변함없는 대물림”이 견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비롯한 무수한 개체 생명체들의 이런 “대물림 현상”을 좀 더 음미해 보자. 나는 그 첫 번째 의미로 이런 “대물림 현상”이 개체 생명체의 생존에 가장 기반이 되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이해한다. 집에서 개를 길렀는데 개가 고양이를 낳았다면 우리는 무척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두 번째 의미로는 그런 항상성 즉 “대물림”은 ‘생존의 안정감’과 동시에 비록 유한하지만 “생명의 지속성”이라는 ‘희망’도 동반하고 있다.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는 러시아의 국민시인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시를 보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민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이 시에서 ‘미래에 사는 마음’에는 바로 “희망”이란 정서가 “대물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삶의 고통을 회피하기만 하려는 태도는 이런 ‘희망의 불씨’를 찾지 못해서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수용력과 견디는 인내력은 그 안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자동화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의미로는 자연계의 개체 생명체에게 각자 유일하고 고유하게 내재되어 있는 “생태적 대물림”과 특히 우리 인간에게 여일하게 이어지는 “정서적 대물림(안정감과 희망)”은 세상 만물이(인간 포함) 이러한 신비한 섭리 안에서만 생존되는 “유한 생명체”임을 절감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무한 생명체’라면 “대물림”이란 현상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유한이 무한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곧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인간의 “대물림 현상”은 “윗대 인간을 닮을 수밖에 없는 가시적 비가시적 현상”이다. 아빠를 닮았느니, 엄마를 닮았느니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를 닮았느니, (외)삼촌이나 고모나 이모를 닮았느니.....하고 ‘닮음의 여부’를 제일 먼저 운운하는 무의식적 본능은 “대물림”이 그만큼 생존의 양태를 안정시키는 인간의 굴레이기 때문이다. 외모의 “닮음”은 곧 그 집안의 가시적 “대물림” 현상이다. 그러나 비가시적 “대물림”은 더 복잡미묘한 현상을 보인다.

내가 상담에서 막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비가시적 “정서적 대물림”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고 ‘성격이 아빠 닮아서 좋다, 안 좋다’느니, ‘엄마처럼 예민하다, 무디다’라고 평가하는 말들은 “대물림 된 정서적 양태”를 단순히 표현하는 말이다. 그 정서적 양태에는 크거나 작게 “보이지 않는 상처 곧 고통의 파리”가 있어서 내담자의 ‘심리적 안녕’을 방해한다

고 여기기 때문에 그 고통을 완화하거나 녹여내면 더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 믿음 또한 연구실험을 통해 과학적 개연성을 확보한 몇몇 심리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한 사람의 “정서적 대물림”도 외모처럼 부모의 한쪽을 많이 닮기도 하고 적게 닮기도 한다. 아버지가 과묵한 정서의 소유자라면 아들도 그러기 쉽다. 수다스러운 엄마를 닮았다면 아들이라도 수다스러운 남자가 될 수 있다. 딸도 마찬가지로 말수가 적거나 수다스러운 여성이 될 수 있다.

벋속 태아 때부터 인간 생명체는 ‘죽음의 공포’로 인해 ‘생존 본능’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파충류적 반사감각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전능에 가까운 능력으로 나를 보살피며 죽지 않고 살아가는 “최상의 모델”이 바로 부모인 것이다.

부모 상호 간의 정서적 관계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청소년기까지 자란 사람들은 그들 역시 부부의 정서적 관계가 원만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서적 대물림”을 받은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 즉 부부싸움이 잦은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 싸움의 강도에 따라 부부싸움을 대수롭지 않게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반동형성이란 방어기제로 인해 부부싸움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참는 사람도 있다. ‘아버지가 알콜 중독자인 딸들의 70%가 알콜 중독기가 있는 남자에 끌려 결혼한다’라는 80년대 미국의 리서치 결과도 있다.

다양한 내담자들의 “정서적 대물림”을 체감하면서 동시에 나 자신의 “정서적 대물림”도 더욱 깊게 체감하고 있다. 아버지는 과묵하셨지만 가족의 생계 및 생활 유지를 위한 돈벌이에는 성실하고 부지런하셨다. 자녀에 대한 깊은 정감을 지니셨지만 표현을 잘못하셨다. 아내에 대한 애정 표현도 언어가 아닌 태도나 물건으로 대

신하셨다.

어머니는 학식, 교양, 인품이라는 가치를 중히 여기시며 그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지니셨지만 아버지처럼 깊은 정감을 지닌 분은 아니셨다. 아무리 급해도 뛰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만큼 느긋하셨다. 아버지는 ‘유명세’를 부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내게는 ‘유명세’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다.

나는 지금도 아내를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부부 생활 40년이 되어 가지만 아내를 “여보”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반면에 아내는 나에게 늘 “여보”라고 자연스럽게 부른다. 그럴 때마다 내심으로는 닭살이 돋는 듯하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를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는 정서적 태도를 어릴 때부터 귀로 습득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내게는 어쩔 수 없는 부부 호칭의 “정서적 대물림”이다. 아직도 나는 아내를 “어이~!”라고 부른다.

가족 집단 뿐 아니라 국가나 사회 집단에도 “대물림 현상”은 여일하다. 중국의 ‘위지둥이전’에는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줄곧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부족이 한민족이라는 서술이 있다고 한다. 오늘날의 “K-Pop” 열풍이 바로 그런 대물림의 소산이 아닐까 얼핏 생각해 본다.

70년대 후반에 입사해서 32년 동안 근무한 필자가 대물림받은 “MBC의 집단 정서”는 무엇이였을까, 가시적인 대물림으로는 문득 사시社人인 “자유 책임 품격 단합”이 떠오른다. 그러나 비가시적 “정서적 대물림”으로는 “공정함(Fairness)”을 늘 내 가슴 속에 지니고 일했으며 MBC를 출입하는 타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설파하곤 했다. 아직도 MBC맨들의 가슴 속에는 “공정성”이라는 “정서적 대물림”이 견지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예! 선배님, 그렇고 말고요”라는 후배들의 반가운 호응이 메아리친다면 참 흐뭇할 것 같다.



##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김종길(편제) 세월을 살고 있다. 그런데 요즘 부쩍 동물병원 왕래가 잦아졌다.

병치레하는 강아지들의 증상도 다양해서, 눈꺼풀 주변에 다수의 작은 물혹 제거 수술을 하고 거리 감각이 둔해진 ‘돌돌이’, 다이어트 사료만 먹이는데도 체중이 계속 늘어서 움직이기를 싫어하던 ‘산이’는 갑상선 호르몬 이상, 피부병으로 털이 빠져서 치료 중인 ‘소망이’. 나이가 제일 많아 뒷다리를 절며 불안 증세를 보이는 ‘오래’, 2~3일 굶고 폭식하다 배앓이 횡수가 잦은 ‘사랑이’ 등등.

그리고 보니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아이들도 꽤 많다. 심장사상충으로 1년간의 투병 끝에 가버린 ‘깜순이’, 자고 나니 사지가 굳어있던 ‘진순이’, 로드킬 당한 ‘꼬맹이’와 ‘노랑이’, ‘도도’ 등등. 그동안 술한 주검을 목격했고 한동안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다.

엿그제 새벽 2시,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며 의식을 잃어가던 ‘짱이’

는 아내의 인공호흡과 마사지로 겨우 위기를 넘기고 날이 밝자 동물병원으로 달렸다. 심장이 2배로 커진 초음파 영상을 보며 “이런 애들은 갑자기 기온차가 심해지면 발작을 하고 눈발 같은 곳에 내놓으면 쇼크로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동행한 다른 ‘닥스훈트’ 중 10살 짜리 암컷 ‘돌순이’는 중성화 수술 뒤 정상을 되찾았는데 이번에는 우측으로 목이 비뚤어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 장애라 뇌신경 관련 약물 처방을 받았다.

문제는 동물병원은 건강보험 각각대요 진료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관광버스 운행중단 2년 차, 지난 여름 2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않다가 겨우 주말 점심 영업만 하고 문을 닫는 황량한 수덕사 산채식당 자영업자의 한숨은 죽순처럼 돌아났다. 폐업하거나 업종 변경하는 이웃들이 줄을 이었다.

“엄마, 산소방이 국산은 120만원 중국산은 40만원인데, 국산은 너무 비싸고 중국산은 고장 나면 AS가 안된데. 어떻게 하지? “.....” 귀가하는 차 안에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반려동물의 치료와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환자 치료용 산소방을 집에 설치하자라는 의견 일치를 본 후였다.

의논 끝에 가족들의 결론은 생명 사랑 실천 우선으로 ‘국내산 산소방’을 선택했고, 산소발생기와 호스로 연결되는 방은 직접 제작하기로 했다.

이틀 뒤 소형견은 물론 중형견까지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플라스틱 박스가 배달되었고, 드릴로 상단 뚜껑에 호스 통과용 작은 구멍 하나와 하단부 전후좌우에 환기구용 구멍 10개를 뚫었다.

10월 초,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반가운 소식이 전해왔다. 소나무, 참매, 국화를 주제로 하는 제1회 ‘충남도 상징물 사진 공모전’에서 내 작품이 장려상으로 선정이 됐으며 상금은 100만 원이었다.

가뭄 끝의 단비 같은 상금을 받자마자 아내와 딸은 두 마리의 강아지를 안고 그동안 돈이 없어 미뤘던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으로 가기로 했다.

평생 종사한 방송영상 제작과 비슷한 분야인 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도 기쁘지만, 거기서 탄 상금으로 반려견들의 치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



가. 뿌듯한 만족감에 더해 가족들의 환한 미소까지 보게 됐으니 흡족한 행운이다.

비는 대지를 가리지 않고 바람은 울 때를 안다. 빛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구름도 사라질 때를 안다. 그러나 나는 40여 년 한곳을 바라보며 살아온 아내의 눈빛도, 가림막 없는 막내의 속내도 다 읽지 못했다. 반려동물 몸짓에도 갈증을 느끼고 예순일곱 해 낙조 닮은 가을조차 낯설어한다.

어디쯤에서야 생명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아내와 막내의 현기증 나는 저 사랑을 다 받아줄 수 있을까? 거대한 단풍 바다 넘실대는 덕숭산에 무리 지어 달려오는 파도 붉은 만추다.



### 라이브 방송 TOP1 라이브온스튜디오 라이브커머스 방송대행

쇼호스트 / PD / 기획 / 마케터 / 촬영송출

차별화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홈쇼핑 방송 진행 횟수 국내 TOP1  
라이브방송대행 진행 횟수 국내 TOP1

25년간 홈쇼핑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회사가 만들면 다릅니다.  
패션, 뷰티, 리빙 등 홈쇼핑 방송 횟수 30,000건 이상의 레퍼런스  
홈쇼핑 총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달성 경력!  
현직 홈쇼핑 쇼호스트와 연계한 Agency 관리!  
신인 쇼호스트와 전문 PD 양성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아카데미 운영!  
최고사양 방송장비와 전용스튜디오 보유 (가산 / 강남 / 포천)  
라이브커머스 자체 플랫폼 보유!

정상급 전문가를 보유한 “라이브온스튜디오”와 함께하세요.

**LIVE ON STUDIO** 1588-9880  
www.liveonstudio.co.kr